



개정도서관법 설명회 개최

우리협회는 최근 개정된 「도서관법」과 관련하여 11월 29일(수)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에서 개정 「도서관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서관법 개정의의와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협회 대표들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회원간의 단합을 촉진하고, 향후 새로운 도서관 환경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 프로그램

-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만듭시다
/ 한상원(한국도서관협회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의미와 운영전략
/ 이용남(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지방분권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 정현태(한성대학교 · 상명대학교 강사)



독서문화진흥법, 국회 본회에서 대안 가결

「독서문화진흥법」(문화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75493)이 11월 30일(목) 제17대 국회 제262회기 제15차 본회에서 재석의원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 가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별개의 단행 법률로 만들어 제안된 것이다. 지난 9월 8일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중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도서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서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안되었다.

▶ 6 page

협회소식

독서대학 운영



우리협회는 독서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인과 독서교육을 담당할 사서를 대상으로 독서대학을 운영하였다.

독서진흥위원회(위원장 : 황금숙)가 운영을 담당한 이 프로그램은 9월 15일(금)부터 12월 1일(금)까지 10주간 과천정보과학도서관과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각 프로그램의 마지막날에는 수료식을 가지고 과천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사서 10명, 일반인 14명에게, 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에서는 사서 16명, 일반인 22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 프로그램

<일정>

- 과천 : 일반 - 9/20~11/29(매주 수요일) 10:00~13:00
사서 - 9/15~12/1(매주 금요일) 16:00~19:00
- 대구 : 일반 - 9/21~11/30(매주 목요일) 10:00~13:00
사서 - 9/21~11/30(매주 목요일) 16:00~19:00

<강좌 내용>

- 1회 : 오리엔테이션
- 2회 : 우리의 정신보건 현황과 독서치료
- 3회 :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오는가?

- 4회 : 독서치료 실제 1 - 과거의 나(과거내재아)
- 5회 : 독서치료 실제 2 - 자아실현
- 6회 : 독서치료 실제 3 - 자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 7회 : 독서치료 실제 4 - 부부관계에서 오는 마음상함
- 8회 : 독서치료 실제 5 - 친지관계에서의 마음상함
- 9회 : 독서치료 실제 6 - 일상에서 오는 마음상함
- 10회 : 아직도 가야 할 길, 독서치료용 자료 소개

롯데마트 · 한국P&G · 비룡소 공동 주관, 우리협회 후원, 지역 도서관 도서기증 운동 실시

우리협회가 후원하고 롯데마트 · 한국P&G, 도서출판 비룡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역 도서관 도서기증 운동' 이 12월 15일(금)부터 24일(일)까지 10일간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롯데마트 전국 48개 매장에서 P&G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사랑의 지역 사회 기증카드'를 증정하여 총 20,000개가 모이면 각 지역도서관에 총 5,000권의 도서를 기증하게 된다.

기증 방법은 롯데마트가 점포별로 인근 지역 도서관을 선정, 100~150권의 도서를 지원한다. 또한 롯데마트에서 30,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비룡소의 도서를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협의회소식

한국도서관협회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 공공 · 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 개최

한국도서관협회 광주 · 전남지구협의회는 11월 29일(수) 광주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공공 · 학

교도서관 발전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서관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공·학교도서관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 프로그램

〈기조강연〉

- 환경의 변화와 도서관

/ 김태승(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특별강연〉

- 차이와 소통 : 현대사회와 철학, 독서와 논술

/ 박구용(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국내 소식

독서문화진흥법, 국회 본회에서 대안 가결

11월 30일(목) 제1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독서문화진흥법안의 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5월 8일 박형준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독서문화진흥법안」 및 2006년 8월 1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圖書館 및 讀書振興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8. 21)에서 대체토론을 했다. 그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듭 논의되어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9. 2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상기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을 근거로 11월 29일 문화관광위원장이 독서문화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였다.

이번 독서진흥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target=billview.jsp&billid=038164>]

■ 제정이유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문화관광부 장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2. 문화관광부 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6조제1항).
3. 독서문화진흥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독서진흥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함(제7조제1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교·직장에서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11조).
5.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6.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 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5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에서 대안 가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75514)이 12월 1일(금) 제17대 제262회기 제16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가결된 법률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도서관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starget=billview.jsp&billid=038202>]

도서관 등에서의 보상금의 지급 단체 지정 및 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3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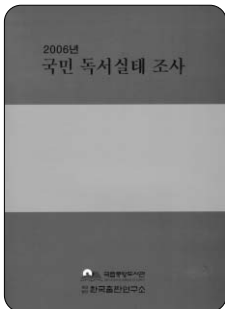
문화관광부, 서비스 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 공공도서관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문화관광부는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월 11일(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문화산업부문에서 주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이후 증가하고 있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문화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에 부담해 오던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억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년도 국민독서실태 결과 발표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출판연구소와 함께 조사한 ‘2006년 국민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초·중·고등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

면, 2년 전에 비해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권,

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2권 정도가 늘어났고, 도서관 이용률과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서 내용(본문) 검색 서비스’는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6%로 2년 전과 비슷했지만, 연평균 독서량은 1권이 늘어난 약 12권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독서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독서율 감소와 책을 읽는 사람이 보다는 책을 읽는 ‘독서인구 양극화’ 현상도 지난 조사에 이어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시간은 10년 전에 비해 1/5 감소한 하루 45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도서관이 증설되면서 우리 국민 3명 중 1명(31.2%)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만큼 도서관 이용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 역시 2년 사이에 5%포인트 늘어나 76%로 역대 최고 기록을 보였다.

독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는 정부의 공공도서관 증설과 장서 확충, 대중매체의 독서정보 제공 확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공립 도서관 혁신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12월 14일(목)과 15일(금) 양일간 제주한화리조트에서 ‘국·공립 도서관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도서관 서비스 부문의 환경개선과 국·공립 도서관의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에는 혁신 특강과 도서관 정책·서비스 강화 방안,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우수 혁신사례 발표가 있었다.

[문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 02-590-063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진흥 세미나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2월 1일(금) ‘청소년 독서진흥 정책 방향 및 실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독서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소년의 독서활동 생활화 방안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독서진흥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의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팀, ☎ 02-3451-0756]

■ 프로그램

<기조강연>

- 청소년의 독서활동 강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 한복희(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표 및 토론>

- 청소년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환경 개선 방안
/ 발표 : 김중성(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토론 : 서미선(서울중화고등학교 교사)
- ‘호모 디지쿠스’ 시대의 청소년 독서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
/ 발표 : 이정춘(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토론 : 김경연(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연구정보세미나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 청소년 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방안을 주제로 12월 6일(수)

도서관 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지원 성과와 서비스를 점검하고, 보다 다양하고 고품질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국내 아동문학분야전문가, 도서관분야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

■ 프로그램

<주제발표>

- 어린이 청소년 연구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 이란주(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해외 어린이 청소년 연구 정보서비스 동향
/ 김경연(아동청소년문학 평론가)

<사례발표>

- 어린이 도서연구 활동 사례
/ 조월례(어린이도서 전문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연구자료실 운영 사례
/ 배정미(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한국도서관통계과제연구팀, 한국도서관 통계 실용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통계과제연구팀은 12월 8일(금)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도서관 통계 실용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도서관통계 현황과 국제 도서관통계의 항목과 경향을 살피고 공공, 대학, 학교, 전문 등의 각 관종별 도서관의 통계항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한국도서관통계과제 연구팀

황동열(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안인재(동원대학 교육서비스문화정보과 교수)

황금숙(대림대학 문화정보과 교수)

오세훈(광운대학교도서관 정보자료과장)

장혜영(한국은행 정보자료실 사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전국어린이서비스 담당자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2월 1일(금) ‘전국어린이서비스담당자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어린이서비스담당자협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발전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청소년자료실 담당사서, 어린이 서비스 관련기관(단체) 직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의회 구성관련 추진경과 보고, 협의회 규정 및 사업계획 보고, 협의회 운영 등이 논의되었다. 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선출되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도서관협력단, 백령도와 연평도에 학교도서관 지원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서관협력단이 인천시내 35교에 대한 지원을 마치고 11월 23일(목)과 24일(금) 양일간 백령도와 연평도에 위치한 학교도서관을 지원했다.

연평도 연평초등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학교도서관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상담지원 및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활동도 펼쳤다.

백령도 북포초등학교와 백령중학교에서는 최근 도서관을 새롭게 꾸미면서 파·훼손도서의 폐기, 도서의 수서방법 논의,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독서교육 등 도서관이 없어 하지 못했던 도서관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지원했다.

부산시교육청,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1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만권의 장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2007년 하반기부터 서비스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11개 도서관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30여만명의 독서회원 정보를 통합하는 회원통합관리시스템도 2007년 구축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도서와 독서회원정보의 통합관리에 따라 11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가 한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11개 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타 지역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 신청해 집 근처 도서관에서 받아보고 반납도 어느 도서관에서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서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하고 도서관과 도서관을 순회하는 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책 읽는 청주’ 시민토론회 개최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청주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립정보도서관은



12월 7일(목) 도서관 강당에서 청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책 읽는 청주 시민 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진행으로 8명의 토론자가 자리를 함께해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가 주는 재미의 요소, 지금의 부모와 작품 속의 부모의 모습, 독일 교과서에 수록된 이유, 이 책이 주는 감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외에도 11월 30일(목)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책 읽는 청주 청소년토론회'도 열렸다.

[문의 :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열람담당, ☎ 043-299-2120]

한밭도서관, 2006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직원 세미나 개최

한밭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2006 대전·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지원 세미나'를 12월 13일(수) 개최하였다.

'정보사회에서의 도서관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 프로그램

- 도서관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지향성
/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유럽의 공공도서관
/ 김윤성(대전안산도서관 사서)
- 공공도서관의 비전과 발전방향
/ 박동철(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개정된 도서관법과 도서관 정책변화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공공도서관의 자료폐기 현실화 방안
/ 오종필(한밭도서관 사서)

전주시립삼천도서관, 독서심리치료 코너 운영

전주시립삼천도서관은 최근 독서심리치료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독서심리치료코너에서는 상황별 목록과 함께 403권의 도서를 선정·전시해 이용자들이 책읽기를 통해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통찰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원 북 원 부산' 발전 방향 시민토론회 개최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원 북 원 부산' 운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원 북 원 부산 연합독서토론회'가 12월 5일(화) 부산시민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부산시교육청·부산시립공공도서관·부산일보사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도서관 등 도서관과 독서클럽 관계자, 시민 등 170여명이 참석해 사례발표와 공공도서관이 이끌어가는 독서문화 운동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프로그램

- (1부 : 사례발표)
- '원 북 원 부산' 독서토론회 사례발표(1)
/ 시민도서관 독서클럽 '한울타리 독서회'

- '원 북 원 부산' 독서토론회 사례발표(2)
/ 연산도서관 독서클럽 '꽃다지 독서회'
- '원 북 원 부산' 운동 운영 담당자 사례발표
/ 박경재(구포도서관 사서)
- 공공도서관이 이끌어가는 독서문화 운동
/ 김정숙(부전도서관장)
-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함께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 이동환(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

〈2부: 전문가 토론〉

- 독서토론회 독서클럽 운영방법
/ 이도환(사직여자고등학교 교사)
- 선진국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통해서 배운다
/ 윤정옥(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한국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현주소
/ 이용훈(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원 북 원 부산' 운동의 역할과 가치
/ 이웅재(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학술정보관, 미국 유학자료코너 마련



성균관대학교학술정보관은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과 '윈도우 온 아메리카(Window on America)' 자료에 대한 공동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

학술정보관 3층 로비에 마련된 이 코너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원이 제공하는 미국유학 및 여행, 미국학, 영어교수법에 관련된 도서와 자료들을 비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위덕대학교 중앙도서관, '제8회 전국위덕독서대상 공모'



위덕대학교 중앙도서관은 10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청소년들의 독서인식을 높이고자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위덕독서대상 공모전'을 10월 1일(일)부터 10월 31일(화)까지 한달간 실시했다.

올해의 응모작은 총 795편으로 이 가운데 최우수상은 "당신들의 천국을 읽고"를 공모한 심인고등학교 2학년 오정민군 수상했으며 그 외 우수상 2명, 각각 5명, 입선 20명을 선발했다. 시상식은 11월 28일(화) 위덕대학교 총장 응접실에서 열렸다.

[기사제공 : 위덕대학교중앙도서관]

목원대학교 혜세도서관, 혜세 수채화 및 도서전시회 개최

목원대학교 혜세도서관은 11월 29일(수)부터 12월 5일(화)까지 중앙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혜세도서관 개관 7주년 기념 혜세 수채화 및 도서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화가로서의 혜세를 드러다 볼 수



있는 기회로, 해세의 수채화 50여점과 진귀한 해세의 기록물, 초판본, 특별본, 작품, 번역본, 참고문헌, 시청각자료 등을 함께 전시했다.

목원대학교 해세도서관은 지난 1997년 독일언어문화학과 홍순길 교수가 자신의 소장 자료로 “한국해세학회 자료도서관”을 개관하고 2000년 지금의 “해세도서관”으로 개칭했다.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정보통신 분야 외국학술지 지원센터 설립

대학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북대학교도서관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서울·수도권 3개, 지방 7개 등 총 10개 대학에 분야별 외국학술지 지원센터가 설립될 계획이다.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예술·인문·어문, 사회과학·법학, 경제·경영, 자연과학, 기술과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생명공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농축산 및 해양 등 10개의 학문 분야로 나누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된다.

첫 번째로 출범한 경북대학교중앙도서관 외국학술지 지원센터는 전자·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국내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있지 않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쇄학술지 약 500종을 새로 구독하여 총 847종의 외국학술지를 전국의 대학 및 유관기관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

순천기적의도서관,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경연대회 금상 수상



순천기적의도서관은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의 아름다운 숲·도로·공원·자연경관 등 우수한 지역자원을 발굴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NGO, 개인 등이 참가해 총 753개 작품을 출품된 가운데 지역자원의 지역 친근성, 관광자원성, 친환경성, 지역 고유성, 미관성 등을 기준으로 현지 확인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은 2007년부터 ‘아름답고 쾌적하며 특색있는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만드는데 중앙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 국회 의결

국회는 12월 8일(금) 열린 제17대 국회 제262회기 제18차 본회의에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22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외규장각도서는 대한민국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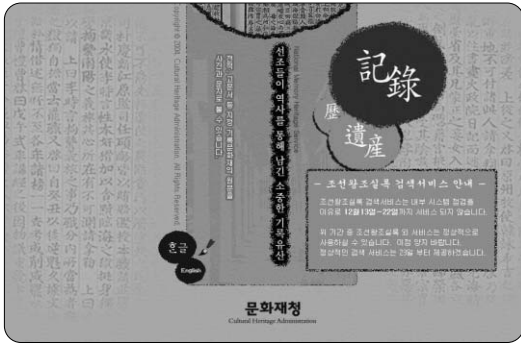
요한 기록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 프랑스 정부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규장각도서가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극동 함대에 의해 약탈된 우리 문화유산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약탈 문화재의 원 소유국 반환이라는 유네스코 정신과 국제박물관협회 전문가회의 원칙 등 약탈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 관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는 191종 272권으로 이 가운데는 필사본이 없는 63권의 유일본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1993년 열린 정상회담에서 영구임대를 조건으로 외규장각도서의 반환에 합의했으나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문화재청, 기록문화재 원문 인터넷 공개



문화재청은 ‘국가지정 중요 전적문화재 원문 DB 구축’ 사업을 통해 수집한 각종 기록문화재의 원문을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www.memorykorea.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문화재는 국보 51건, 보물 565건, 중요민속자료 10건, 시도유형문화재 271건 등 총 1,033건이다.

국가기록유산 기록화 사업은 불의의 재난으로 인

한 문화재 손상에 대한 대비책으로 영구보존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또한 전국 각처에 위치한 각종 문화재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역사, 문화,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적문화재의 전문, 고해상도의 컬러 이미지, 초서체의 어려운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문화재의 서지사항과 전문가 해설문을 볼 수 있으며, 한자원문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의 한글번역문과 원문검색을 일반인들도 국가기록유산 사이트에서 통합검색 할 수 있다.

(사)어린이와도서관, 국공립민간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교류지원 워크숍 개최

(사)어린이와도서관은 12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인 “국공립민간 어린이도서관 활동가 교류지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찾아가는 도서관학교 수료자, 국·공립 학교도서관 담당자, 어린이도서관 및 유관단체 실무자,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 및 찾아가는 도서관학교, 지역 책문화잔치 사례만들기를 통해 모아진 관심과 민관의 교류협력관계를 화합하는 자리인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마무리 교육의 자리가 되도록 했다.

■ 프로그램

〈강좌〉

- 어린이책 출판동향 / 한미책(출판칼럼리스트)
- 북아트와 책보수 / 백창화(숲속어린이도서관)
- 그림자연극놀이 / 태태옥(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 자원봉사자 및 후원인 개발과 운영

〈토론회〉

- 국공립민간 어린이도서관의 네트워크 방안
/ 박소희(늘푸른어린이도서관)
- 성장희(국립중앙도서관)

〈사례발표〉

- 어린이도서관 사례발표

(사)한국출판인회의, '2006 출판인의 밤' 개최

(사)한국출판인회의는 12월 5일(화)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2006 출판인의 밤' 을 개최했다.

2006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7년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는 '2006 올해의 출판인 시상식' 과 '재즈 아티스트 신관웅 밴드' 의 연주가 마련됐다.

■ 2006 올해의 출판인

- 본상 / 장인용(지호출판사 대표)
- 공로상 / 이건복(동녘출판사 대표)
- 특별상 / 백원근(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 편집부문 / 이재민(휴머니스트 주간)
- 마케팅부문 / 임건석(나남출판 전무)
- 디자인부문 / 민진기(북디자인)

(사)한국출판인회의, 제3회 해외저명출판인 초청세미나 개최

(사)한국출판인회의는 12월 12일(화)과 13일(수) 각각 한국출판인회의 대강당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제3회 해외저명출판인 초청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편역국 산하 중앙편역출판사 사장인 허이엔 선생을 초청하여 '한국출판사의 중국시장 진출 방향' 을 주제로 외국의 세계적 출판기업의 성장 노하우와 최신 출판 마케팅법을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허이엔 선생은 중앙민족대학 민족연구소에서 강사

를 역임하고 중앙민족대학출판사의 편집인과 발행인, 부사장을 거쳐 중국 사회출판사 부사장과 광명일보 출판사 부사장을 지냈다.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편역국 산하 중앙편역출판사 사장과 중국민족법학회 이사, 북경창작작회 이사, 중국 도서관행물협회 사회과학분과위원회 부주임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7년 독서진흥사업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2007년을 '전 국민 책 읽는 해' 로 정하고, 'BK(Book Kid) 07' 과 '동시가 흐르는 기차여행' 과 등 독서 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BK 07' 사업은 2007년에 취학하는 전국 6,246개 초등학교 1학년 19,216개 학급을 대상으로 양서를 보급하고, 학부모 대상 독서교육을 실시하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이다.

'동시가 흐르는 기차여행' 은 소외계층 아동이 작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동시 낭독, 독서 토론 등을 통해 독서 경험을 쌓아가는 행사이다. 기차여행과 함께 파주출판도시와 영어마을, 역사마을 등 문화도시를 탐방해 책이 기획되는 단계부터 제작·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도 경험 할 수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밖에도 출판 진흥 및 건전한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이동 북페어, 시각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 출판 독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도 계획 중이다.

'2006한국전자출판산업전' 개최

2006한국전자출판산업전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책컨소시엄,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이 공동 주관한 '2006한국전자출판산업전' 이 12월 7일(목) 컨텍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전자출판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우수한 출판문화와 세계적인 IT기술이 융합된 한국 전자출판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2006전자출판산업전’에는 전자책 제작 서비스, 오디오북, 도서본문검색, 모바일북, 전자사전, 유비쿼터스 도서관, POD, RFID, 전자잡지, 출판사 등 관련 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한 u-Book 전시회와 ‘출판의 미래 u-Book 포럼’, 전자책 독서퀴즈대회, 전자책 관련 저작권 강의와 상담도 있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12월 7일(목) 제주오리엔탈 호텔에서 회원 3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인 ‘한국학술정보협의회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협의, 현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하부메뉴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 광장’을 협의회 전용 홈페이지로 발전시키는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정기총회 이후에는 ‘전자도서관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프로그램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과 도서관
/ 심민석(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장)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IBS 솔루션과 도서관
/ 이후성(삼성전자 IT 솔루션 그룹과장)
-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 안효질(고려대학교 교수)
- 도서관 관련 저작권의 쟁점 및 상담사례
/ 이용록(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한국학술산업연구정보협회, 창립 총회 개최

한국학술산업연구정보협회(국문약칭:한정협)가 11월 24일(금) 서울광화문 프레스빌딩 19층 기자클럽에서 창립 총회를 가졌다.

한정협은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주요 학술, 산업,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모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의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한정협은 앞으로 국내 및 해외 학술연구정보의 유통, 이용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 산업,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정보산업 수요기관인 대학도서관과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사서에 개인 및 단체 간 파트너십 고양 및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해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게 된다.

인터파크도서, ‘북페이퍼’ 서비스 실시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는 소비자들이 책을 고르는데 참고가 될 만한 도서관련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는 '북페이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는 매일 새로운 '책 뉴스'를 제공하며 문화관광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BS, EBS 등이 추천한 도서를 소개하는 '미디어 추천도서', 국내외 유명 수상작 자료를 제공하는 '추천!수상작' 등 다양한 도서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기록관리협회, 신임 회장 선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1월 15일(수) 이사회를 열고 김성수 교수(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문헌정보학회는 12월 1일(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7층 대회의실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06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신임 학회장 선출이 있었다. 새로운 학회장에는 정동열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선출됐다.

국외소식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도서관 프로젝트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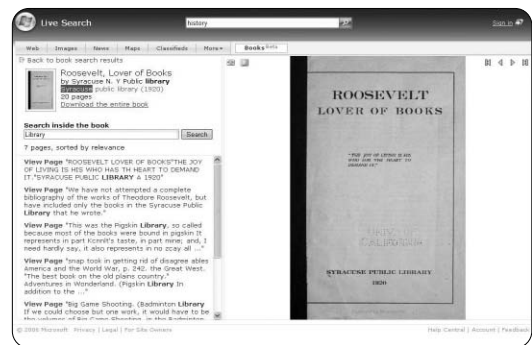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3억2,800만달러를 지원해 전세계 공공 도서관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라이브러리스 이니셔티브(Global Libraries Initiative)'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15여개 개발도상국에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11월 말 사업 확대의 한 부분으로서 개발도상국 3개국에 총 1,75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지원했다.

지원금 가운데 1,620만달러는 라트비아 정부에 제공돼 광대역 인터넷망이 깔린 컴퓨터를 라트비아 모든 도서관마다 평균 3대씩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금 중 110만달러는 공공도서관에 컴퓨터 및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노력중인 보츠와나 정부에 주어진다. 나머지 22만달러는 무료 공공도서관을 위해 리투아니아에 지원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서적 검색 프로그램 '라이브 서치 북스(Live Search Books)' 베타 버전 발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2월 6일(수) 스캔된 서적에 대한 검색과 인쇄가 가능한 '라이브 서치 북스(Live Search Books)' 베타 버전을 발표했다.

라이브 서치 북스 베타 버전은 구글의 북서치와 마찬가지로 PDF 포맷의 파일을 사용한다.

그러나 구글이 '북서치'에 참여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스캔하되 저작권이 소멸된 책에 대해서만 전

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 반면, 라이브 서치 박스는 영국국립도서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토론토 대학교에서 스캔한 저작권이 없는 서적으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앞으로 뉴욕공립도서관, 코넬대학교, 미수의학박물관(American Museum of Veterinary Medicine)에서 현재 로봇시스템으로 스캔하고 있는 서적에 대한 전문 및 출판사들이 스캔프로젝트에서 스캔을 허가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추가할 예정이다.

인간이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검색엔진 ChaCha 선보여



2006년 11월 미국에서 검색엔진 ChaCha(베타판)가 선보였다. 차차는 인간이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검색엔진이다. ChaCha는 인간의 지능, 혹은 전문 지식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검색 엔진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차차의 검색 인터페이스는 검색어를 넣어 'ChaCha Search'를 클릭하면 검색을 실시해 주고 'Search With Guide'를 클릭하면 즉석에서 그 검색어가 나타내 보이는 주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가이드 찾기가 된다. 몇초 후에는 접속된 가이드로부터 「무엇을 도울까요?」라는 인스턴트 메시지가 도착한다. 다음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요점을 전하면 가이드가

조건에 맞는 사이트를 대항 검색해 준다. 응답에 필요로 하는 시간은 평균 5분, 난해한 것은 11분, 간단한 것은 20초 정도에 답을 해준다. 이용은 무료이다.

가이드는 진짜 인간이다. 18세 이상, 영어가 유창한지 등의 조건을 보고 테스트에 합격하면 간단하게 가이드 등록이 가능하다. 학생, 주부 등 특정 주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미 많이 등록되어 있다. "ChaCha Underground"에서는 가이드 개개인의 자신 있는 주제나 최근 검색에 제공한 사이트를 표시해주고 있다.

[Ref : www.chacha.com]

중국국가도서관, '2006년 전국민독서달' 활동 전개



중국국가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자는 의미로 '2006년 전국민독서달'을 운영하였다.

그 첫 번째로 베이징맹인학교에 3,000권의 도서와 800개의 녹음 테이프자료를 기증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책은 어린이 및 초·중학교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맹인학교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독자를 고려해 최근 1~2년 내에 새로 출판된 책 가운데 참고서, 연습서 및 일부 교과서를 제외한 독서자료 등을 담았다.

또한 중국국가도서관은 '전국민독서달' 기간 동

안 베이징의 근교 농민도서관에 정기간행물을 기증했다. 또한 소규모의 도서관에 국가도서관의 '소규모도서관서비스카드'를 기증해 국가도서관이 제3자에게 사용권한을 허락한 디지털문헌 및 50만여개의 중국해외문학 전자자료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한다.

신설도서관

가평군립 조종도서관



- 개관 : 2006. 11. 13.(월)
- 면적 : 건축연면적 1,334㎡
- 설계 : 유덕
- 관장 : 이우인
- 주소 : (447-834)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20-6
- 전화 : 031-580-4301
- 팩스 : 031-580-2329
- 홈페이지 : www.gaplib.or.kr
- 특징 :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장서 18,000여권을 갖춘. **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 자료실·사무실이, **2층**에는 종합자료실·디지털 자료실·공연장이, **3층**에는

는 동아리실이, **4층**에는 첨단과학실습실이, **지하1층**에는 보존서고가 있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포곡도서관



- 개관 : 2006. 11. 15.(수)
- 면적 : 연면적 2,719㎡
- 관장 : 김종역(운영담당 대행)
- 주소 : (449-8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556-2
- 전화 : 031-324-4631~2
- 팩스 : 031-324-4635
- 홈페이지 : www.yonginlib.or.kr/pogok
- 특징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일반·전공 도서 33,000여권 아동도서 23,000여권, 비도서 152종의 장서를 갖춘.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유아실·수유실이, **2층**에는 문헌정보실(참고자료실 포함)과 디지털 자료실이, **3층**에는 세미나실이, **지하1층**에는 시청각실·세미나실이 있음.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